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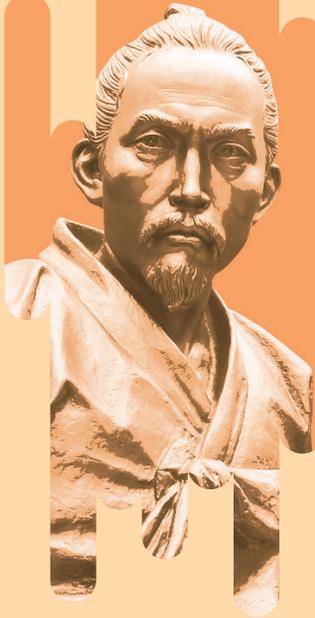
격동의

시대를

기록하다

2026, 봄
63호

노동꽃



기억을 잇는 사람들

김영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유태의 증손자

특집1

부를 수 없는 이름
'장흥, 동학농민군 집단 묘지'

특집2 서평

시간과 동학농민혁명의 유전자
안삼환의 『역관일지』에 대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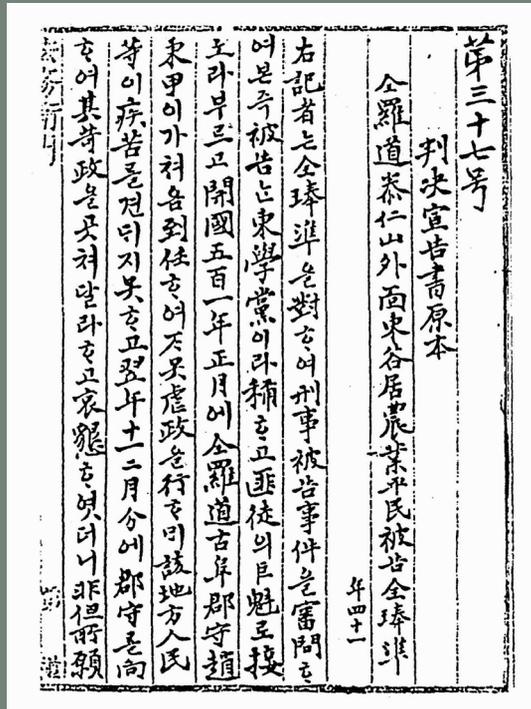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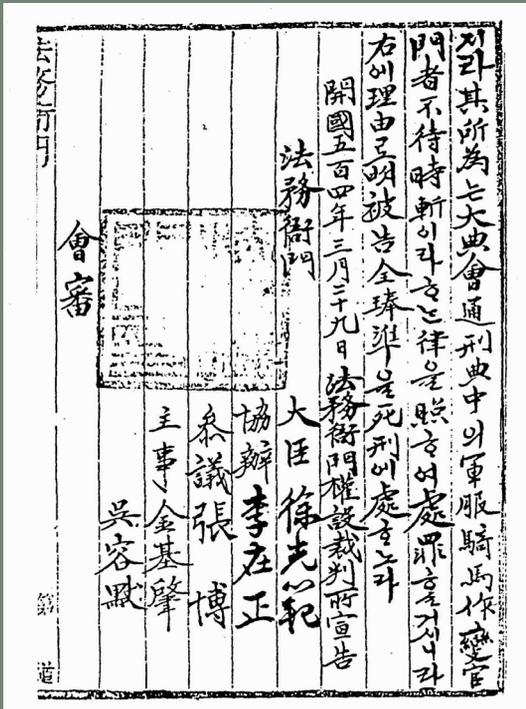


unesco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그날 속으로

2026년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 서울 개최를 기념하며



국가기록원 소장

『동학 관련 판결선고서』, 『전봉준 판결선고서』

『전봉준 판결선고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에게 내려진 법적 판단을 담은 문서로, 격동의 시대가 한 인물과 사상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2026년 국가기념식은 이러한 기록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자리로, 5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열려 혁명이 향하고자 했던 공간에서 그 의미를 다시 묻는다. 1895년 생을 마감한 전봉준의 이름은 오늘날 판결문의 문장을 넘어, 시대를 바꾸고자 했던 의지로 다시 읽히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채널



홈페이지



웹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 02 계절이 지나간 자리
기념공원의 봄
- 04 녹두칼럼
전봉준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걸까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
- 10 기억을 잇는 사람들
기록되지 못한 이름, 기억으로 이어지다
김영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유태의 증손자
- 18 재단 이야기
- 24 특집1
부를 수 없는 이름
'장흥, 동학농민군 집단 묘지'
- 30 1894 한바퀴
대지를 깨우는 함성,
고창에서 마주한 1894년의 봄
- 34 울림의 현장
- 38 특집2 서평
시간과 동학농민혁명의 유전자
안삼환의 『역관일지』에 대하여
천세진(문화비평가, 시인)
- 44 2026년 재단 주요 일정
- 46 녹두꽃 다시 피다
- 47 독자 참여 이벤트



통권 63호 (ISSN 3092-4219)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화** 063-530-9413
발행일 2026년 3월 31일 **팩스** 063-538-2893
발행인 신순철 **기획·편집** 임현진
이메일 1894@1894.or.kr **제작** (주)하이브파트너스
편집자문위원 최명주, 최기우, 김회경, 최두현, 신병구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소식지 『녹두꽃』
구독 신청



햇살 한 아름 내려앉은 들판



천라남도
해남
1차 봉기 때 참여한 해남 농민군은 영랑, 무장 농민군과 함께 전도를 천진하였다. 2차 봉기 때 순사에 관과 수성대를 공격하여 상악의라 했으나 관군과 일본군에 패하였다.



나주

동구광산

전봉준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걸까

길윤형 | 한겨레 논설위원

왜 동학농민혁명은 아직도 독립운동이 될 수 없는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이들(‘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을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망국이라는 참혹한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우리 구한말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논쟁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특히 1894년 10월(이하 날짜는 모두 양력) 이루어진 2차 봉기는 조선의 국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일본의 군사 행동에 맞선 조선 민중들의 명시적인 저항 운동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관련법에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독립유공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 먼저 2004년 3월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1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견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를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1조) 이들로 정의하면서, 법의 적용 대상자를 ‘순국선열’(“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숨진 이)과 ‘애국지사’(“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



* 해당 그림은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거"한 사실이 있는 이)로 구분하고(3조) 있다. 동시에 독립유공자가 되기 위해선 일본에 맞선 저항 행위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 시기적 제한을 두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낸 불세출의 영웅이긴 하지만, 그를 독립운동가로 인정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비극'이 발생한다. 앞서 살펴봤듯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

한 사람"을 뜻하고, 독립유공자는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이들을 이르는 말이다. 법률적 정의만 놓고 볼 때 양자를 딱 잘라 구분해 '전자가 후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국가보훈처는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무려 다섯 차례(2006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걸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한 1894년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에 해당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1894년, 이미 시작된 국권침탈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1894년으로 역사의 시계를 돌려 보자. 탐관오리인 고부 군수 조병갑(1844~1912)의 학정에 시름하던 조선 민초들의 자연발생적인 저항 운동이 시작된 것은 그해 2월이었다. 농민들은 1894년 2월 14일 봉기를 일으켜 고부 관아를 습격했다. 하지만 후임 군수 박원명이 부임해 와 선처를 베풀자 농민들의 분노도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한다.

다시 사태가 험악해진 것은 안핵사(지방에서 일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위해 파견하는 임시직)로 임명된 장흥 부사 이용태(1854~1922)가 등장하면서부터였다. 그가 동학농민혁명을 적대시 하며 봉기에 참여한 이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자 동학농민군은 4월 25일 무장(현재 전북 고창)에서 '보국안민'을 내걸고 봉기했다. 세가 점점 늘어난 동학농민군은 5월 1~3일 부안에서 백산대회를 열어 전봉준(1855~1895)을 총대장, 손화

중(1861~1895)·김개남(1853~1894)을 총관령으로 뽑았다. 기세가 오른 동학농민군은 5월 10~11일 황토현(정읍)에서 관군인 전라감영군, 27일 황룡촌(장성)에선 양호초토사(양호는 호남과 호서, 초토사는 변란을 평정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내려보낸 임시직) 홍계훈(1842~1895)이 이끄는 경군(조선 수도 한양의 정예군)을 잇따라 격파했다. 이어, 31일엔 전라도의 핵심 도시 전주까지 점령하게 된다. 깜짝 놀란 조선 정부가 6월 3일 청나라에게 원병을 정식으로 요청하자, 그 틈을 노린 일본이 청-일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8,000여 명이란 대병력을 한반도에 투입하게 된다.

일본은 동학농민군이 자진 해산 결정을 내리며 전주성을 비운 뒤에도 조선 정부의 거듭된 철병 요구를 한사코 거부한다. 모처럼 얻은 출병 기회를 살려 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조선을 자신들의 반영구적인 '보호국'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 해당 그림은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경복궁이 무너진 뒤, 다시 깃발을 들다

조선의 팔을 꺾기 위해 틈만 엿보던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1833~1911) 주조선 일본 공사는 1894년 7월 20일 조선 정부에게 ‘최후통첩’을 전해왔다. 조선이 청의 속국이 아니라면 22일까지 청의 군대를 국경 밖으로 쫓아내고, 청과 종속 관계를 전제로 맺은 여러 조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어 문서의 말미에는 “만일 귀 정부의 회답이 지연될 경우 본 공사는 스스로 결의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위협을 잊지 않았다.

오토리가 입에 담은 “스스로 결의하는 바”란 일본이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거하고, 대원군을 옹립해 새 ‘친일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군사 행동이 시작된 것은 사흘 뒤인 23일 새벽이었다. 일본은 서울 주변에 배치해 두고 있던 병력을 대거 투입해 경복궁을 에워싸고 공격했다. 황현은 『매천야록』에 “오토리가 대궐을 침범할 때 평양병 500명이 대궐을 호위”하고 있다가 총을 쏘았지만, “고종을 협박해 함부로 요동하는 자는 참한다는 교지를 내리게 하자 병사들은 모두 통곡하면서 총통과 군복을 마구 찢고 부순 뒤 도주하였다”라고 적었다. 이후 일본은 고종을 사실상의 포로로 잡은 채 조선 내 친일 개화파들을 앞세워 갑오개혁(1894~1896)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대대적인 ‘국가 개조 프로젝트’에 나서게 된다.

이 광경을 지켜본 조선 민중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전봉준이 마침내 전북 삼례에서 2차 봉기를 일으킨 것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거한 지 석 달 뒤인 10월 12일(음력 9월 10일)이었다. 전봉준은 훗날 체포된 뒤 이뤄진 첫 심문(1895년 3월 5일)에서 ‘왜 다시 기포했느냐’고 묻는 우치다 사다쓰지(内田定槌, 1865~1942) 주한 일본 공사관 서울 영사에게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귀국이 개화라 칭하고 처음부터 일언반사도 민간에 전해 알림이 없고, 또 격서(檄書)도 없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도성에 들어와 야반에 왕궁을 격파하여 주상을 놀라서 움직이게 하였기로 초야의 사민(士民)들이 충군애국의 마음으로 강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의병을 규합하여 일본 사람과 접전하여 이 사실을 한 차례 청해 묻고자 합니다.”

우치다는 6개월 뒤인 1895년 9월 2일 동학농민혁명 관계자에 대한 모든 사법 처리가 끝난 뒤 자신의 상관인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1836~1915) 공사에게 올린 장문의 보고서에서도 2차 봉기의 이유에 대해 “봉준은 일본 군대가 대궐을 침입하였다는 것을 듣고 이것은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병탄하려는 뜻 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일본군을 격퇴하고 일본 거류민을 국외로 내쫓을 목적으로 재차 거병을 도모하였다”고 적었다.

이어, 우금치 전투 이후 전봉준의 행적에 대해서는 “봉준은 더욱 일본군을 공격하려고 기도하였으나 일본군은 공주에 있으면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고, 그 사이에 봉준의 부하들은 점차 도망가고 흩어져 마침내 수습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마지못해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군사를 모집하여 전라도에서 일본군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그 모집에 응하는 자가 없었다”는 기록을 남겼다.

1895는 되고 1894는 안 된다

당대 일본 정부 당국자조차 인정한 전봉준 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국권침탈에 반대”하는 저항 운동을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하기 위한 유일한 ‘합리적 이유’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시기적 구분을 러일전쟁이 발생한 1904년 이후로 규정하는 것뿐이다. 실제 2012년 10

월 만들어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시점을 ‘러일전쟁 개전 시’, 즉 1904년 2월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게 되면 갑오개혁,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활동, 대한제국기 고종의 여러 개혁 조처를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정부가 국권침탈의 시기를 스스로 10년이나 앞당기는데 동의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1895
1894

그렇다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말아야 할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동학농민혁명 바로 이듬해인 1895년 발생한 을미의병은 무려 145명이 이미 독립유공자로 서훈돼 있다. 결국, 국가보훈처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에 해당되는 시기를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한 1894년’이 아닌 ‘을미의병이 시작된 1895년 이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1년을

사이에 놓고 이런 근본적인 차별을 해야 할 그 어떤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 어처구니없는 설명에 납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역사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가마 위에 처연히 앉은 전봉준의 사진을 찍은 이는 메이지 시대 일본의 유명 사진기자인 무라카미 덴신(村上天真, 본명은 무라카미 고지로村上幸次郎)이다. 이 광경을 묘사하는 『오사카마이니치신문』 1895년 3월 12일 기사를 보면, 전봉준은 “총검 때문에 봉대를 감았고 안색은 창백해 병든 듯 했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다”라면서 “아아 아까운 명사여”라는 탄식을 남기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전봉준을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벌써 다섯 번이다.



전봉준이 재판소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무라카미 덴신, 村上天真 촬영)

이것이 정말 맞는 결정일까. 을미의병의 서훈을 취소할 게 아니라면, 전봉준에 대해서도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하루 빨리 취하는 게 옳다.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2001년 11월 『한겨레』에 입사해 사회부·국제부 등을 거쳤고, 2013년 9월부터 3년 반 동안 도쿄 특파원으로 재직했다. 귀국 후 『한겨레 21』 편집장과 『한겨레』 국제뉴스팀장, 통일외교팀장을 맡았고 국제부장을 거쳐 통일외교 국제 담당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 『안창남, 서른 해의 불꽃같은 삶』, 『26일 동안의 광복』, 『신냉전 한일전』, 『조선의 갈림길』이 있다.

기록되지 못한 이름, 기억으로 이어지다

김영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유태의 증손자

날짜: 2026. 1. 28.(수)
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참여자: 김유태(1860 ~ 1894)
유족: 김영웅(김유태의 증손자)
대담: 기획운영부장 최두현
정리: 기획운영부 임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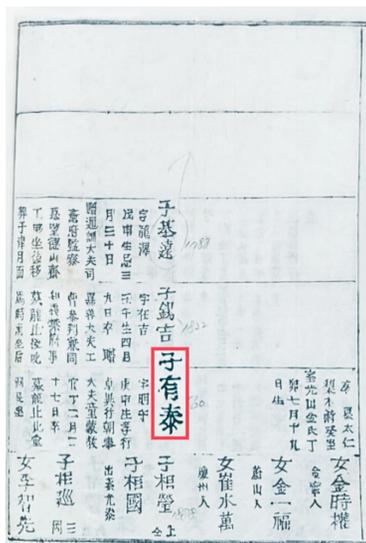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유태 선생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광양·하동·남해 일대에서 활동한 인물로 전해진다. 같은 해 12월 하동 송림에서 처형된 이후, 그의 행적은 공식 기록보다 가문에 전승된 구술과 후손들의 증언을 통해 이어져 왔다. 후손들은 흩어진 자료와 기억을 모아 선조의 행적을 확인하였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을 통해 그 사실을 공식화하였다.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독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녹두꽃』 애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김유태의 증손 김영웅입니다. 올해는 전봉준 장군 순국 131주년인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병오년을 맞이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다시금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자리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현재 김 양식법을 개발·전파한 김여익 공의 기념물을 보존·관리하고 있는 (사)김 시식지 유적보존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뿌리를 묻는다면,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던 증조할아버님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해김씨파보(金海金氏派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다시금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자리하기를 기원합니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신 김유태 선생님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저는 김유태 참여자의 증손입니다. 증조할아버님께서 순국하신 이후에도 저희 가문은 고향인 광양을 떠나지 않고 그 터전에서 삶을 이어왔습니다. 세월이 130년 넘게 흘렀지만, 가문의 어른들은 늘 증조할아버님의 이야기를 기억 속에 간직해 왔습니다.

증조할아버님은 단지 족보에 이름으로 남은 조상이 아니라, 저희 가문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증조할아버님은 역사적 인물이기 이전에 삶의 기준이 되는 어른이십니다.

●● 증조부이신 김유태 선생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입니다. 김수용 할아버님 무릎에 앉아 재롱을 피우던 때, 자연스럽게 증조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의식을 하고 들은 것은 아니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니 그 이야기는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이었지만, “우리 집안 어른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셨다”는 말은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어린 나이에는 동학농민혁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정의로운 일을 하셨다는 자부심은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역사 공부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접했고, 그때 비로소 증조할아버님의 선택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김유태 선생님께서 광양, 하동, 남해 일대에서 활동하셨다고 전해지는데,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김유태 선생님의 활동 모습이나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증조할아버님께서는 학식이 깊고 기골이 장대하며 ‘명오(明午) 장군’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이 별칭은 단순한 호칭이라기보다 당시 지역 사회에서 받았던 신망을 보여주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김유태 참여자의 주요 활동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광양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셨고, 하동과 남해 일대까지 오가며 동지들과 뜻을 함께하셨다고 합니다. 단순히 전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 김유태 선생님은 하동 송림에서 처형되었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국 당시의 상황에 대해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1894년 10월(양력) 무렵, 하동 소오산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이 있었고 이로 인해 증조할아버님도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오산은 금오산의 다른 이름으로, 오늘날 이 사건은 ‘하동 금오산 전투’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당시 소오산 일대는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로, 동학농민군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오가며 활동하던 중요한 연결 지점이었습니다. 전투 이후 해당 지역은 급속히 통제되었고,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과 색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조할아버님께서는 동료 10여 명과 함께 광양 인접 남해 지역으로 잠시 몸을 피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2월 무렵, 증조할아버님은 광양 진상면 섬거리 일대에서 발생한 전투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다시 동료들과 함께 참전하기로 결의하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지였다고 가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전장으로 향하던 길에 흑여 살아 돌아오지 못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광양 태인도 용지마을에 잠시 들르셨다고 합니다.

마을 앞 용머리 선창에 배를 대고 마을로 향하던 중, 주민의 밀고로 매복 중이던 일본군과 관군에 체포되어 동료들과 함께 하동 송림으로 연행되었습니다. 1894년 12월 하순, 하동 송림에서 혹독한 고문 끝에 증조할아버님은 참수되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달성 서씨 증조할머님께서 장남 김수용 할아버님을 데리고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시신은 이미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남편에게 손수 지어주었던 저고리의 타다 남은 옷고름 고름 발견하고서야 증조할아버님의 죽음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손발톱이 흩어져 있었다고 하셨는데, 아마 극심한 고문의 흔적으로 짐작됩니다.

●● **그 시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순국 이후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으며, 현재 묘소는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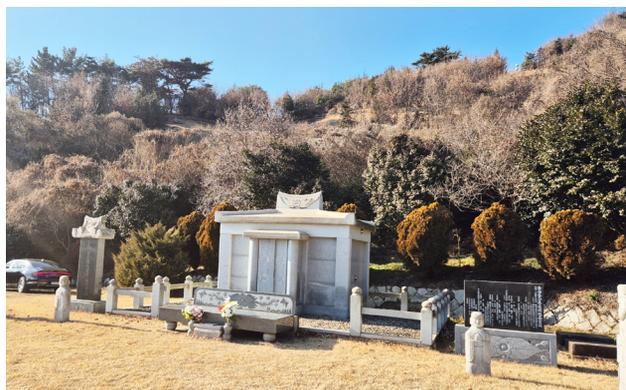
당시 시대 상황에서 '역적'으로 몰린 증조할아버님의 장례를 온전히 치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둔 청상과부의 처지에서, 공개적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가족 모두에게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타다 남은 옷고름 고만이라도 수습하여 용지마을 북쪽 부친 묘 아래에 매장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당시 가족이 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장례이자, 증조할아버님을 기리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묘는 그 자리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2001년에 진월면 진정리 가족 묘원으로 이장하여 현재의 묘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장이 아니라, 후손들이 증조할아버님의 뜻과 희생을 보다 온전히 기리고자 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동 송림은 지금도 동학농민군이 처형된 장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증조할아버님의 순국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그 시대 수많은 민초들이 겪어야 했던 역사적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문에서는 증조할아버님이 끝까지 동료들과 뜻을 함께하려 했던 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가장 크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반역으로 낙인찍혔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뜻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묘소는 지금도 후손들의 제향 속에서 조용히 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유태 참여자의 가족 묘원

● 김유태 선생님의 동학농민혁명 참여 사실을 기록한 비석을 건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석을 세우게 된 계기와 과정에 대해 들려주시겠습니까?

가족 묘원을 조성하면서 집안의 내력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이야기들은 세월이 흐르면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뿌리와 증조할아버님의 삶을 정리하여 비석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계의 연원을 정리하는 차원이었지만, 동학농민혁명 참여 사실이 재단을 통해



김유태 참여자의 동학농민혁명 참여 사실이 일부 기록된 김해 김씨 추모비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지 집안의 어른을 기리는 비석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증조할아버님의 공적을 기리는 표지로 자리 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참여자로 인정받은 만큼, 그 뜻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기념비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참여자 및 유족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시게 되었습니까? 신청 과정에서 집안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손자인 김재무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참여자와 유족 등록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집안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족들은 모두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증조할아버님의 참여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모으고 증빙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일이다 보니 문헌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구술과 기록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증조할아버님의 삶을 다시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졌을 때, 가족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김유태 참여자의 후손
(왼쪽부터 김재숙, 김영웅, 김재희, 김재무)



2025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통지서 전달식
(왼쪽에서 두 번째 김영웅 유족)

● 김유태 선생님께서 처형당하신 후, 가족과 집안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젊은 나이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둔 청상과부가 되었던 증조할머님께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시절이었을 겁니다.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 또한 순탄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머슴살이와 낱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른들 말씀으로는 형편은 어려웠을지라도 그 기개만은 꺾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자식들 또한 꺾듯하게 살아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세대, 또

한 세대를 지나며 집안을 다시 일구어 냈습니다. 증조할아버님의 동학농민혁명 참여는 가족들에게 큰 시련이 되었지만 동시에 삶을 지탱하는 정신적 뿌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태 선생님의 동학농민혁명 참여 사실이 후손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문 내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전해져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삶의 태도로 보여드리려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문에서는 증조할아버님의 이야기를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전해왔습니다. 후손들 또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증조할아버님의 이름은 단순한 위인이 아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 한편, 마을에서도 김유태 선생님의 집안을 ‘동학 집안’으로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에서 느꼈던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집을 ‘동학 장군집’이라 불렀고, 증조할아버님의 장남이신 김수용 할아버님을 ‘총독 영감’이라 부르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증조할아버님과 김수용 할아버님께서 마을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시고 원금도 형편에 맞게 나누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상생의 태도가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쌓았고 ‘동학 집안’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이처럼 가문 안팎에서 이어져 온 ‘동학 집안’이라는 기억과 인식이 후손들의 삶의 태도나 지역사회 참여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는지요?

증조할아버님의 동학농민혁명 참여는 후손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전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인물이 두 분이나 있었고, 시의회 활동도 했습니다. 경제, 행정, 군, 체육, 노동, 종교,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후손들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와 지역을 위해 기여하려는 태도는 모두 증조할아버님의 삶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저 역시 김 시식지 유적 보존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김수용(김유태 참여자의 장남)

- 최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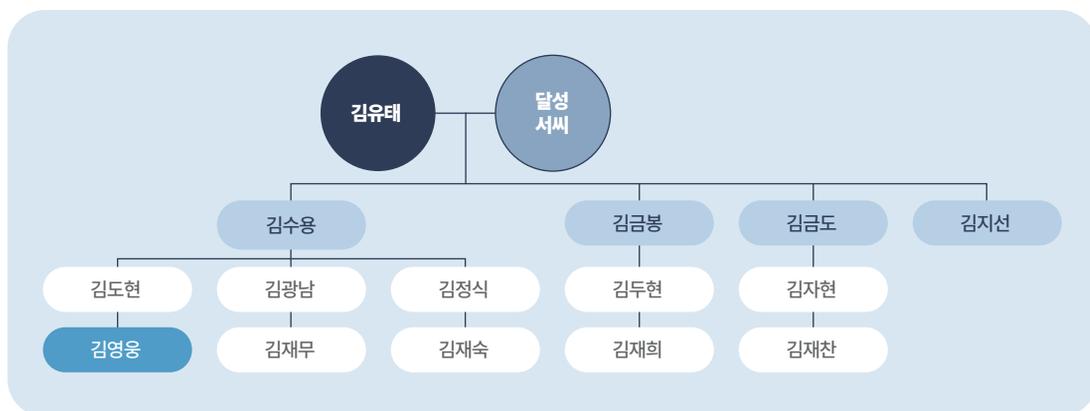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서훈을 받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날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유공 단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면 서훈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예라기보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끝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으로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혹은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의 후손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정부와 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록되지 못했던 이름들이 다시 불리고, 그 뜻이 공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후손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특정 집단의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가치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참여자 후손으로서 저희의 작은 활동 또한 배타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세상을 바로잡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선생님, 귀한 말씀 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족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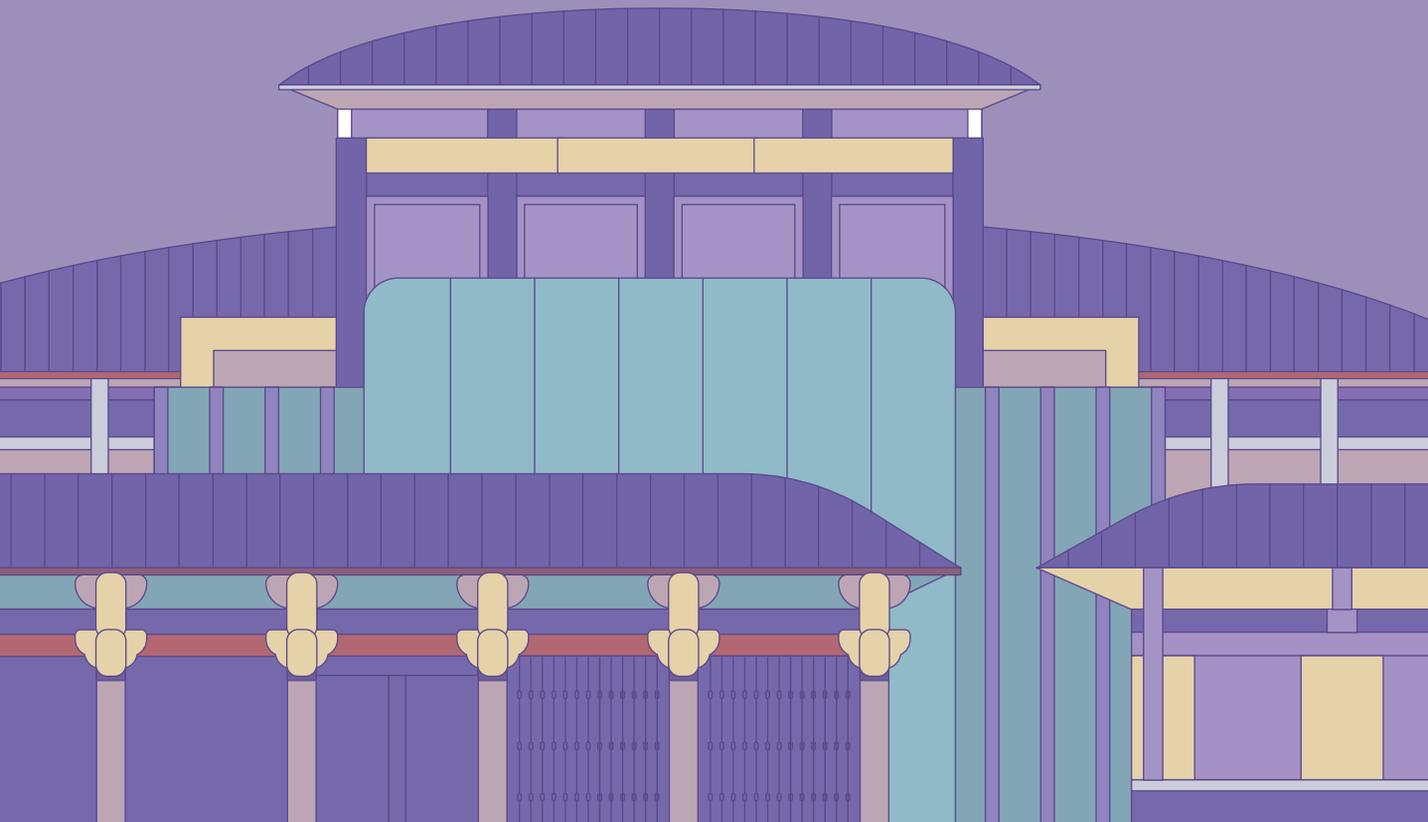
김유테 참여자 가계도

재단 이야기

행사

활동

학술 및
회의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서울을 향했던 혁명의 뜻, 다시 서울에서 울리다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바로가기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서울 광화문, 2019년)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서울 경복궁 흥례문 마당, 2021년)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2025년)

1894년 동학농민군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염원을 품고 조선의 심장부인 서울을 향해 나아갔다. 비록 공주 우금티에서 관군과 일본군의 무력 앞에 발걸음을 멈추어야 했지만, 자주와 평등을 향한 그들의 뜻까지 꺾이진 않았다. 그 정신은 132년의 시간을 지나 오늘의 민주주의와 시민 연대로 이어져 왔다.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은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2026년 5월 11일(월) 오전 11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서울을 향해 나아갔던 혁명의 여정이 다시 서울 한복판에서 기억되고 공유된다는 점에서 이번 기념식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은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되어 왔다. 지정 첫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렸으며 이후로 5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개최된다.

특히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람객이 찾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만큼 그 상징성은 더욱 깊다.

올해 기념식은 '갑오년의 횃불, 오늘의 빛이 되다'를 주제로 마련된다. 평등과 인권, 자주의 정신이 시대를 건너 오늘의 빛으로 이어져 왔음을 돌아보고, 동학농민혁명이 '함께 만든 역사'이자, '미래를 비추는 방향'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유족등록통지서 전달식, 기념 공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과 전국 기념사업 단체, 시민, 정·관계 인사, 학술 연구자 등 약 400여 명을 초청해 그 뜻을 기릴 예정이다.

132년 전 서울을 향했던 발걸음은 그 자리까지 닿지 못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 기념식은 과거의 염원을 오늘의 가치로 잇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시민이 기록하고 세상이 공감한 8개월의 여정

2025년 제1기 블로그 기자단 해단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25년 12월 1일, 기념관에서 '2025년 제1기 블로그 기자단' 해단식을 열었다. 6명의 기자단은 지난 8개월 동안 총 58건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시민의 시선으로 전달해왔다.

재단은 이번 활동이 시민 참여 기반 홍보의 가능성을 확인한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한다.

한편 2026년 블로그 기자단은 3월 중 모집을 진행해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재단 블로그
바로가기



2026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식 추모관 및 동학농민군상 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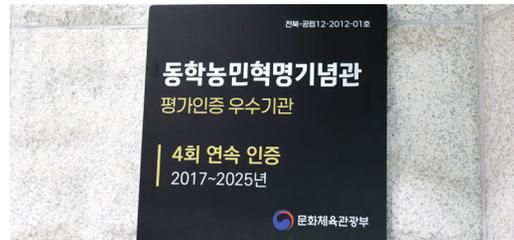
2026년 1월 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임직원들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사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동학농민혁명박물관 내 추모관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조성된 기념시설물 '불멸, 바람길'(동학농민군상)에서 헌화와 묵념을 올리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임직원들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새해 업무의 시작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평가 4회 연속 인증기관 선정

2025년 12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4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기념관은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인증을 획득하며 전문성과 운영 내실을 입증하였다. 특히, 소장품 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정적인 운영 체계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기념관은 이번 평가인증을 계기로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공직유관단체 지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2025년 12월 공직유관 단체로 지정되었다. 이번 지정은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체계를 보다 엄격히 준수하게 되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확산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25년 조사·등록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158명, 추모관 명패로 새기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지난 2월, 2025년 조사·등록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158명의 이름을 명패에 새겨 추모관에 추가 설치하였다. 이번 명패 설치는 그동안 기록과 자료 속에서 확인한 참여자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추모관에 새겨진 이름 하나하나의 혁명의 현장에서 나라와 민중을 위해 헌신했던 이들의 삶을 상징한다.

재단은 지속적인 조사와 발굴을 통해 더 많은 참여자들이 역사 속에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새로 더해진 158명의 이름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오늘에 잇는 또 하나의 기록이자 기억이다.



전주MBC,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숨결을 찾다

전주MBC의 대표 지역 프로그램 「전북이 참 좋다」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찾았다. 방송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차례로 소개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였다. 이번 방송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기념공원의 의미를 대중에게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주MBC 「전북이 참 좋다」
방송 바로가기

사진 출처: 전주MBC Original



2026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지역단체 확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2026년도 지역단체 기념사업 지원」 공모를 통해 최종 18개 지역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각지의 기념사업 단체들이 참여하였으며, 사업의 적정성, 실행 가능성, 지역 확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정하였다. 재단은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 기념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연구소 학술총서』 3·4·5권 발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소장 김양식)가 2025년 학술대회 성과를 엮은 『동학농민혁명연구소 학술총서』 제3~5권을 발간하였다. 제3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 양상과 특징을 분석해 기초 연구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4권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조선 법부의 사법기록과 「사법품보」를 검토해 동학농민군의 체포·처벌 과정과 근대 사법제도의 편향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제5권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에서는 세계기록유산 『취의록』, 『거의록』, 『갑오일기』 등 신규 기록물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지역적 특성을 구체화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학술총서』
바로가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6기 제2·3차 이사회 개최

2025년 12월 10일, 2026년 2월 12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6기 제2·3차 이사회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 주재로 열렸다. 재단은 제6기 제2차 이사회에서 2026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사회에서는 기념식 장소, 지역단체 기념사업 지원, 세계기록유산 홍보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2026년 2월 개최된 제6기 제3차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임원 추천 규칙 제정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 또한 제132주년 기념식 준비와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재단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6기 제1·2차 자문위원회 개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25년 11월 27일 제6기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2025년 주요 업무 실적과 2026년 사업계획을 점검하였다. 위원들은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 홍보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2026년 국가기념식 활성화와 지자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2026년 2월 10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결산안을 보고받고 제132주년 기념식 운영 방향, 국제학술대회 확대, 국가유산 DB화 결과 공개 등 주요 사업을 자문하였다. 또한 웹툰 공모전 활용과 AI 대응 전략 마련 등 재단의 중장기 발전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6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참여자 33명, 유족 2명 등록 심의-의결

2025년 12월 3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제 26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순철 위원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구선희(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김춘성(천도교 선도사), 배항섭(성균관대학교 교수), 정탄진(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이정미(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안미정 전통문화과장 대리 참석), 박성민(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직무대리), 이제복(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류동연 학예연구관 대리 참석) 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3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그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3명과 유족 2명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로써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총 4,066명, 등록된 유족은 13,841명에 이르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 워크숍 개최

학술·출판·사전 편찬 사업 본격화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1월 12일 운영위원 워크숍을 열어 주요 사업 현안과 2026년도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2025년 연구용역 사업인 2차 봉기터 삼례역참 위치 비정 결과를 공유하고, 고창 학술대회, 재단 정기 학술대회, 세계기록유산 국제학술대회 등 주요 학술행사 주제를 확정하는 한편 세부 발표 주제의 구체화에 뜻을 모았다.

또한, 세계기록유산 관련 단행본 발간 및 『전북일보』 연재 사업, 국제학술대회와 연계한 출판기념회 추진을 검토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사전 편찬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였다.



부를 수 없는 이름 '장흥, 동학농민군 집단 묘지'

최두현 | 재단 기획운영부장

전라남도 장흥

동학농민혁명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관련 이야기도, 죽임을 당한 희생자도 많다. 정읍 고부 봉기부터 장흥부사 이용태의 악행,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의 대규모 전투와 학살이 자행된 현장에는 당시 죽은 동학농민군 1,700여 명이 묻힌 묘지가 있다. 1월 22일, 맹추위 속에 현장을 찾았다. 130여 년 전 그날의 칼바람도 이토록 매서웠을까. 얼어붙은 대지 위로 이름 없는 넋들의 낮은 신음이 들리는 듯했다.



무연고, 방치에서 국가 관리의 장으로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많은 동학농민군이 희생되었고, 혁명 실패 이후 전국 각지에서 처형이 이어졌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이들이 모여진 대규모 묘역은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유교 사회에서 참여자 가족으로 찍히면 가산 몰수나 추방 등의 보복이 뒤따랐음에도, 상당수는 가족이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수습했기 때문이다. 전봉준과 김개남 등 최고 지도부조차 시신을 찾지 못한 사례와는 대조적이다.



동학농민군이 일본군 및 관군과 맞서 싸운 장흥 석대들 전투 현장

전라남도 장흥

1894년 12월과 1895년 1월 사이, 장흥과 강진은 일본군 및 조선 관군에 맞서 동학농민군이 대규모 전투를 벌인 지역이다. 공주 우금티 전투에서 패배하고 퇴각한 일부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의 전라도 진입을 막기 위해 공주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남 지역 동학농민군이 합세해 약 3만 명에 이르는 병력이 장흥에 집결했다. 당시 전봉준은 순창에서 체포된 뒤였고 김개남도 전라감영에서 처형된 이후였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도부가 부재한 상황이었지만 장흥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은 그해 12월 장흥 역참이

담당하는 벽사역을 점령하고, 이어 다시 장흥 부사가 있는 장흥성(장녕성)에 입성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은 다시 강진으로 남하해 강진성을 차지했고, 이어 강진 병영면에 있던 대규모 군사 주둔지인 병영성을 공격해 점령했다. 이제 남은 곳은 나주. 전라도 수부 전주를 점령하고 전주화약을 체결했듯이, 전라도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나주성 공격을 준비했다.

일본군은 공주에서부터 동학농민군을 추격하며 논산, 태인, 금구 등에서 동학농민군을 격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임을 알았지만,
동학농민군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대로 돌아가 폭정이 넘치고
외세가 점령한 나라에서 살 수 없었다.

하며 남하했다. 이들은 나주성을 중심으로 좌우로 군대를 나누어 장흥에 있는 동학농민군에 대한 최후 진압을 계획했다. 동학농민군은 군사력과 신식무기 등에서 월등히 앞선 일본군의 나주 수성에 맞서 나주성 공격 계획을 접고 장흥에 다시 집결했다. 그리고 약 20여 일간 일본군 및 조선 관군과 동학농민군 간 장흥 석대들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고, 동학농민군은 수천 명이 희생되며 패퇴하고 만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임을 알았지만, 동학농민군은 물러서지 않았다. 더는 내려갈 곳도 이대로 돌아가 폭정이 넘치고 외세가 점령한 나라에서 살 수도 없었다. 일본군과 관군은 월등한 무기와 조직된 군사력으로 동학농민군을 사살했다.

1,700여 명의 무명(無名) 동학농민군이 잠들다

짧았던 동학농민군의 장흥 일대 점령이 일본군의 본격적인 전투 참여로 꺾이고 말았고, 그들은 석대들 논밭에 쓰러졌다. 앞에 말한 유교 문화는 이곳에서도 그대로 작동했다. 장흥 지역 희생자들의 시신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은 가족에 의해 수습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집결한 연고 없는 동학농민군 희생자는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읍내 주민들이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 그렇게 그들은 1989년까지 약 95년 동안 무연고 묘로, 부를 수 없는 이름으로 묻혀 있었다. 장흥군이 이곳에 공설운동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무연고 묘는, 다시 무연고 묘라는 이름으로 이장되었다.

이전된 지 35년, 장흥군이 관리하고 있지만 장흥공설묘지 4구역에 빼곡한 봉분들은 모양을 잃고 낮게 내려앉아 있다. 잊히지 않기 위해 서로의 어깨를 맞댄 채 흙 속으로 잦아드는 무덤들을 보니, 세월의 무게가 이름 없는 죽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당시 현장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자 무연고 묘지에 대해 집안 어른들에게 동학농민군 묘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양기수 씨는 말한다.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 석대들 논밭에서는 사람 유골로 추정되는 뼈가 농사일을 하다 보면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고재국 대표는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이곳이 난리 통에 죽은 사람들 묘라고 했다고 한다.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이 말하는 난리 통은 1950년 한국전쟁이다. 고대표도 한국전쟁이냐고 물었더니, 어른들은 그보다 훨씬 이전 난리 통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것은 동학농민혁명 시기다. 또한, 당시 관군과 일본군의 기록, 동학농민군 대규모 처형 현장, 전투지에서 나온 유해 등이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무연고 묘지, 바로 동학농민군 집단 묘지는 공설운동장 건립으로 인해 이장되었다. 당시 묘지 이전 작업은 장흥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정정진 씨가



1,2 동학농민혁명 장흥 석대들 전투 희생자 묘역

사업권을 받아 진행했다. 양기수 씨도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현장에서 직접 유해를 보았다. 당시 인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묘지에서 머리가 두 개도 있고, 다리뼈가 3개도 있는 등 집단 매장지 형태였다고 한다. 묘지가 이장된 지 35년이 흘렀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는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대체로 보국안민, 제폭구민으로 압축되어 있다. 19세기 후반 조선을 뒤흔든 대역사였

지만, 현장을 세세하게 찾아내고, 기억하고, 아픈 역사를 되짚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장흥에 이런 대규모 동학농민군 집단 매장지가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른다. 여전히 행정적으론 무연고 묘로 되어 있다.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니 더더욱 존재감이 없는 공간으로 잊히고 있는 것이다.

무연고 묘라는 망각,

이제는 국가가 역사의 무대로 불러내야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현재 행정구역으로 약 90여 개 시군에서 동학농민군 봉기가 일어났다. 여기저기 전투지와 집단희생지가 있지만, 장흥처럼 대규모 집단 묘지는 없다. 동학농민군을 동비, 비류, 폭도 등으로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꿈꾼 민중이 아니라 그저 처형하고 박멸해야 할 무지렁이 백성, 역적 등으로 여긴 그들의 살육 작전에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한 곳이다. 특히, 일본군과 관군은 석대들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1895년 여름까지 주변 지역을 수색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찾아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다.

그들은 동학농민군이 처음 점령했던 장흥 벽사역에서, 잡아 온 동학농민군 얼굴에 용수(籠首)를 씌우고 사살했다. 이곳은 안핵사 이용태가 벽사역의 군사들을 동원해 고부 봉기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혁명의 불길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도화선이 된 곳이다.

장흥 지역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한 위외환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이사장이 집필

한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에 의하면 이곳에서 공식 처형된 동학농민군이 장흥 300명, 강진 320명, 해남 250명, 나주 230명 등 1,100명에 이른다. 이중 장흥에서 이름을 남기고 죽은 동학농민군이 357명, 무명 전사자 1,165명이다.

장흥에서 벌어진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규모 살인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다시는 이와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폭정, 국가폭력이 없도록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역사에 남겨야 한다. 또한, 일본군이 저지른 가혹한 폭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 백성들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은 역사적 잘못을 우리는 기록해야 한다. 그 기록은 동학농민군 묘역을 정비하고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의 평등, 인권, 자주의 정신,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정신을 살려 우리의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다지는 기반이자 역사 현장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다 알고 있는 진실에 침묵하며 지금도 무연고 묘라는 이름으로 장흥군에 관리 책임을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방안을 찾아야 하고, 역사 무대 위로 정당하게 끌어올려야 한다.

그들은 이름 없는, 부를 수 없는 존재로 죽어갔으나 한국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었다. 우리가 이들을 다시 제대로 부를 수 있을 때 그 상처는 치유된다. 그때야말로 폭력과 죽음이 평화와 인권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하루속히 대한민국 국력에 걸맞은 역사민주교육의 현장으로 거듭나도록 정비가 절실하다.

대지를 깨우는 함성, 고창에서 마주한 1894년의 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글: 이영은, 사진: 김동민

추운 겨울이 물러난 자리에 연둣빛 보리 새싹이 돋았다. 고창의 붉은 황토 위로 비로소 봄이 찾아온 것이다. 가벼워진 외투를 챙겨 입고 고창으로 향했다. 이번 주말, 130여 년 전 봄꽃 향기 대신 민초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고창의 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





고창 무장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고택주의장 추모비

보국안민의 첫 깃발, 고택 무장 기포지

가장 먼저 발걸음이 멈춘 곳은 130여 년 전 그날의 외침이 울려 퍼진 고택 무장 기포지다. 이곳은 고부 지역에서 시작된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곳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1894년 봄, 구수마을 들판에 모인 동학농민군은 무장포고문을 통해 혁명의 대의를 세상에 알렸다. 고부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비로소 '보국안민'의 깃발 아래 전국적인 항쟁으로 타오른 순간이었다. 푸릇해진 들판을 따라 걸어가면 민초들이 꿈꿨던 세상을 새긴 포고문비와 동학농민군이 전열을 가다듬던 훈련장 표지석이 나란히 서있다. 곁에 세워진 추모비 앞에 서면 시대를 앞서갔던 민초들의 숭고한 희생이 피부에 와 닿는다. 이 땅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의 뜨거움 투지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평온해 보이는 들판 곳곳에 남은 흔적들이 그날의 결의를 짐작케 한다.

📍	고창 무장 기포지
위치	전북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
주요 볼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오동학농민군 고택주의장 추모비 · 소나무 세 그루 · 동학농민혁명포고문비 · 동학농민군 훈련장 표지석

고창 동학농민군 훈련장 표지석



십표와 여운을 담은 넓은들 학원농장

고창의 봄을 이야기하면서 청보리밭을 빼놓을 수 없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약 15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들녘은 청보리와 유채꽃이 어우러져 연둣빛 물결로 일렁인다. 고창의 옛 이름인 '모양(牟陽)'이 보리에 내리쬐는 햇살을 뜻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눈앞의 풍경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이름 그대로 햇살을 머금고 반짝이는 보리밭 사이를 느릿하게 걷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은 비워지고 그 자리엔 기분 좋은 여운만이 남는다.

	넓은들 학원농장
위치	전북 고창군 예전리 469-4
주요 볼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월 유채꽃과 청보리 · 초가 정자 · 중앙 전망대 · 구릉지 산책로



고창 청보리밭

에너지를 채우는 맛, 선운산풍천장어거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다. 여정의 중간, 잠시 숨을 돌리며 기운을 채울 차례다. 선운사 어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인천강 하구의 힘을 담은 풍천장어는 고창의 명물이다. 거친 물살을 이겨낸 장어는 육질이 담백하고 쫄깃하기로 유명하다. 숯불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장어 한 점에 고창의 에너지를 몸속 가득 채우고 다시 길을 나선다.

*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선운산풍천장어거리
위치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24
주차	식당 앞 주차장 이용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전경



무장읍성의 정문인 진무루

들녘을 품은 성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여정은 바로 무장현 관아와 읍성으로 이어진다. 기포지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동학농민군이 가장 먼저 당당히 발을 들인 역사의 현장이다. 당시 동학농민군이 큰 교전 없이 관아를 장악했다는 사실은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읍성의 정문인 진무루를 지나 성안으로 들어오면 관아의 위용을 간직한 객사 송사지관과 동헌 취백당이 자리한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을 민중이 점거했다는 것은, 억눌려 살던 이들이 비로소 이 땅의 주인임을 선포했음을 뜻한다. 여정의 갈무리는 성벽 길이다. 성곽에 오르면 고창의 평온한 들녘이 한눈에 들어온다. 130여 년 전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삶의 터전이다.

무장읍성의 성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위치	전북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149-1 외
주요 볼거리	· 진무루 · 무장객사(송사지관) · 무장동헌 · 송덕비

성벽을 스치는
바람 속에
그날의 뜨거운 열망이
여전히 녹아 있다.



울림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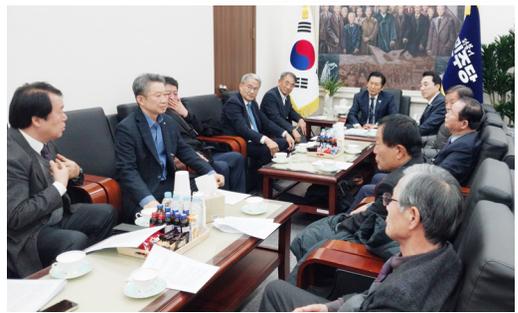
* 해당 그림은 시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전국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 서훈 촉구, 국회에서 공감대 형성

동학농민혁명 단체 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면담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1월 12일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추서를 위한 법률 개정과 당론 채택을 건의하였다. 정 대표는 동학농민혁명의 인내천 사상과 민주·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며,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절차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면담에 동석한 박수현·윤준병 의원 역시 공개 토론회 개최와 입법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

전봉준 장군 동상 참배로 새해 열어

2026년 1월 1일 오전 11시, 새해를 맞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전봉준 장군 동상 앞에서 참배가 진행되었다. 이날 참배에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전봉준장군 동상건립위원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묵념을 통해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을 다짐하였다.



전국

제3회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 정기총회

2026년 2월 2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대강당에서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대표 고재국)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는 제3회 정기총회로, 약 60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2025년도 사업을 점검하고 2026년 사업계획 승인, 정관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단체 간 소통을 넓히고 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강원
홍천

강원동학21,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 위령제 봉행

2025년 12월 12일(음력 10월 23일),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 동학혁명군 위령탑에서 '2025 풍암리 동학혁명군 위령제'가 주민 주도로 봉행되었다. 이번 위령제는 관 중심의 형식적 행사에서 벗어나, 마을이 주체가 되는 추모로 전환을 선언한 자리였다.



경기

경기도의회, '경기도 동학농민 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는 2025년 12월 18일 본회의에서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킴에 제정을 확정하였다. 이번 조례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계승과 유적 보존·연구, 기념·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발의를 이끈 김동규 의원(안산 1)의 노력과 유적지 정비 청원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연대가 결실을 맺었다.

충청
천안

2025년 동학농민혁명 천안 세성산전투 희생자 위령제 개최

2025년 12월 6일 충남 천안 세성산에서 동학농민군 위령제가 열렸다. 이날 위령제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문화행사와 함께 천안 지역 '동학농민혁명 도서관' 건립 촉구 행사도 진행되었다.



전북

전북도,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 첫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관련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도내 거주 유족 549명을 대상으로 연 1회 60만 원의 유족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예우와 역사적 가치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익산

익산동학혁명기념사업회 창립, 지역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익산 지역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익산동학혁명기념사업회(회장 손인범)'가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하였다. 기념사업회는 향후 동학농민혁명 강좌 운영과 관련 서적 발간 등 지역 기반 연구·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
고창

제170주년 전봉준 장군 탄생 기념행사 열려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탄생 제1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2026년 1월 10일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열렸다.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 정신을 기리고 지역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북
정읍

'1894 달하루' 미디어아트관 개관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한 지역 국가유산을 미디어아트로 구현한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를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공간은 정읍시 국가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문화관광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 제132주년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

2026년 2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에서 (사)동학농민혁명고부봉기기념사업회 주최·주관으로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가 진행되었다. 전국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유족, 지역 주민 등 800여 명이 참여해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되새겼다.

전남
무안

동학농민혁명 제131주년 '고막포 전투' 위령제 개최

고막포 전투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제가 11월 28일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다리 천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투 재현과 추모 의식을 통해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주

광주·전남 시민사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촉구 기자회견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39개 단체는 12월 22일 광주 전일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광주

광주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 개최

2025년 12월 11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광주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광주 민주정신의 연관성 등을 주제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시간과 동학농민혁명의 유전자

안삼환의 『역관일지』에 대하여

천세진 | 문화비평가, 시인



『역관일지』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오늘의 시간으로 불러낸 장편소설이다. 작가는 혁명의 현장에 있었던 인물을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불러내어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서사 구조를 구성했다. 소설은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데 머물지 않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오늘

의 사회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역관'이라는 상징적 존재를 통해 과거의 언어를 현재로 번역하는 일의 의미를 탐색한다. 131년의 시간을 가로지르며 이 작품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질문한다.



『역관일지』 저자 안삼환

전주 녹두관 건립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신 이종민 교수의 소개로 『역관일지』를 쓰신 안삼환 작가와 인사를 나눈 자리는 녹두관 앞 오르막이었다. 『역관일지』를 읽기 전이어서 녹두관에 모셔진 인물과 소설 속 주인공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이후에 알았다.

『역관일지』는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을 131년 후인 2025년의 상황에 연결했다. 131년은 상당한 거리다. 시간도 공간처럼 거리를 갖고 있다. 공간의 어느 지점이 시력으로 버거운 지점을 지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과거의 일들도 시간의 시야에서 그렇게 사라진다. 보이지 않는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지도와 기록, 상상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된 시간에도 같은 것이 필요하다.

131년이나 떨어진 시간에서 일어난 일의 의미를 가져오려는 것은 그 일이 현재와 무관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일에 중요한 좌표가 되리라는 믿음이 있어서일 것이다. 믿음은 구체적 좌표를 설정하고 작동해야 한다. 안삼환 작가는 131년의 거리를 어떤 좌표로 읽었을까. 『역관일지』를 읽으며 ‘역관 기질’, ‘시민 비극’, ‘언어의 타락’, ‘망각의 잠’ 같은 좌표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 좌표들로 『역관일지』를 이해해 보려는데, 그에 앞서 어느 시점 이후가 어떤 사회문화적 의미를 갖는지부터 짚고 가겠다.

시간적 이후와 의미적 이후

우린 동학농민혁명 이후를 살고 있다. 132년은 그냥 이후가 아니라 현격한 이후다. ‘이후(以後)’는 시간적 이후와 의미적 이후로 나뉜다. 시간적 이후는 물리적 세계여서 피할 수 없이 찾아오지만, ‘의미적 이후’는 미미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강하고 선명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 아예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 ‘의미적 이후’는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후’이기 때문이다.

‘시간적 이후’도 ‘의미적 이후’도 단순히 흐려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원본을 흑화하거나 백화하고, 악마화하거나 미화한다. ‘의미’를 읽는 의도들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그런 시도가 매 시대 벌어진다. 이분법적인 흑화와 백화가 아니라 발견하지 못했던 의미를 얻기 위한 다른 독법을 취할 수도 있다. 취해야 한다. 다양한 독법을 갖는다면 좋겠지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역관일지』도 다른 독법을 취한 작품이다.

안삼환 작가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다른 독법을 적용한 『역관일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국 문학은 리얼리티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했다. 아무리 특별한 사건이라도 시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리얼리티를 구현하기 어렵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리얼리티를 구현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리얼리티가 전부는 아니다.

멀리 떨어진 과거의 사건에 대해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리얼리티 구현에 무게를 두는 방법, 다른 하나는 리얼리즘 구현에 무게를 두는 방법이다. 역관(譯官)을 자처한 안삼환 작가는 두 번째 방법을 택했다. 역관이 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로일 수 있다. 역관의 길은 온 정성을 다해도 ‘가’(원전)에서 ‘가’(원전)로 가지 못한다. 피할 수 없이 ‘가’로 가야 하지만, ‘가2’로 갈 수도 있고, 엉뚱한 ‘나’로 갈 수도 있다. 리얼리티는, ‘의미적 이후’가 녹아 있는 리얼리즘이 추출되어야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역관 기질

안삼환 작가는 ‘역관 기질’을 언급한다. 역관으로 복무하지 않더라도 정도는 다르지만 ‘역관 기질’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질보다는 자격이 필요한 일인지도 모른다. 역사는 번역과 해석의 길로만 다가오고 다른 길은 없기 때문이다.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하기’와 ‘듣기’가 필요하다. 옳게 말해야 하고, 옳게 들어야 한다. 누군가 말해야 하고 누군가 들어야 하고 들은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듣고 전파하는 이가 역관이다. 녹두관의 인물이 ‘김일술 되기’를 선택한 것도 그렇다. 역관은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되지 않고 듣는 일은 132년 전의 동학농민혁명을

체감하기 어렵다. 동학농민혁명의 절멸을 도모했던 세력을 이해하기 어렵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역사 속 사건이 아니라, 당대의 일로 이해하려는 『역관 일지』는 파우스트와 Y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을 중요한 소재로 설정했다. 파우스트와 Y 대통령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파우스트는 개인적이고 Y 대통령은 사회적이다. 둘에게는 ‘거래’가 존재했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다. 파우스트는 대가로 영혼을 팔았고 Y 대통령은 영혼을 거래 대상으로조차 보지 않았다.

작가는 Y 대통령 내란 사건이 132년 전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동의한다. 132년이 흘렀으나 폭력적이고 미성숙한 정신이 여전히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시대가 있기는 했을까? 미성숙한 폭력적 권력은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제국주의가 다시 득세하고 있으니 외부에서 왔다고 믿고 싶겠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조건이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이다. 외부의 것이 곧 내부의 것이 되는 것, 그 또한 미성숙에서 온다. Y 대통령과 트럼프의 차이는 크지 않다. Y 대통령은 지독한 경험을 겪은 시민

들을 대상으로 싸움을 벌였고, 트럼프는 꿈 같은 시절을 보냈던 백인들을 우군으로 등에 업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트럼프는 운이 좋다. 제국주의는 언제나 운이 좋았다.

시민비극, 언어의 타락, 망각의 잠

안삼환 작가는 ‘시민비극’을 말한다. 시민비극이 끝나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구현된다. Y 대통령은 한 번의 시험을 우리에게 더 선사했다. 어떤 시민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 것이다. 안타깝게도 시민이 반드시 ‘긍정적 정신 공동체’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전 세계적인 극우화는 그런 사실을 방증한다. 전 세계에서 시민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다. 전 세계 시민의 정신이 취약해지고 미성숙 상태로 추락하는 어두운 ‘시민비극’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삼환 작가는 J 교수의 입을 통해 ‘언어의 타락’도 말한다. 언어의 타락은 사유의 타락이고 정신의 타락이다. 지고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니 가치는 사라

지고, 그 끝은 시민이 폭력적 권력에 압살당하는 '시민비극'이다. 그런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다. 최근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로 '문해력'의 추락이 꼽히고 있다.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해의 능력이 있어야 언어가 타락하지 않고 고품격의 민주주의가 살 수 있다.

저자가 등장시킨 또 하나의 좌표는 '망각의 잠'이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망각의 잠'이 정신을 가다듬는 휴지기의 잠이 아니고 역사를 잊는 잠이라면 무서운 일이다. 망각의 지속은 정신의 뿌리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망각의 잠'은 저열한 이분법을 쉽게 안착시킨다. Y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 극렬하게 대립하는 피아(彼我) 구분의 풍경을 만들어낸 걸 유심히 봐야 한다. 우리 모두 역관일 수 있지만, 모두가 자격을 갖추지는 못한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지키겠다는 의지에 대한 보상은 가혹하다.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고통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 파우스트는 몸을 얻고 잃은 것이 있다. 영혼이다. 한 국은 어떤가. 몸집이 크고 근육이 탄탄

한 몸을 얻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이고 영혼이다. 몸만을 얻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파우스트』 속 그리스를 위해 노래하는 합창대는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온 트로이의 여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라를 잃었을 때 이 땅에서 그런 합창대가 만들어졌다. 지금 혹시 그런 노래가 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위해 노래하지 않고 강대국을 위해 노래하는 이들은 없는 것일까. Y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미국에서 항공모함이 오고 있다는 노래가 있었다.

무명의 공간과 리얼리즘

현장으로 달려가는 젊음이 등장한다. 달려가야 한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구현은 현장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곳이든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구현된 현장이어야 한다. 삶이 그러해야 한다. 그런 삶이 곳곳에 있으면 우리 모두 녹두관의 무명과 동일인이 된다. 동학농민혁명의 유전자가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무명은 곳곳에 있어야 한다. 구호가 아니라 생활로 있어야 한다. 녹두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곳곳에서 있어야 한다.

구현되지 않으면 억울함이 깊어진다. 당대의 억울함보다 더 큰 억울함이 후대에 존재할 수 있다. 당대의 억울함은 힘이 없어서다. 힘 있는 자들이 외부에서 오고, 그 외부를 안에서 부른 것어서 억울하다. 후대의 억울함은 망각에서 온다. 힘을 가진 자들이 오래전 찾아왔던 외부 세력과 힘을 합쳐 망각을 주사하기 때문에 억울하다.

132년 전의 사건을 ‘리얼리티’로 살려내려고 노력하는 작가들이 있다. 감사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석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제 막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해석이 필요한데 하물며 132년이다. 해석은 냉철하기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의 위치를 계속 해서 바꾸어 넓은 조망을 가져야 한다.

『역관일지』는 꿈으로 추동된다. 안삼환 작가의 꿈은 의지의 세계를 끌어낸다. 의지는 꿈 같은 세계에 있고 현실

속에는 흔적들만 있는지도 모른다. 의지적 꿈의 세계가 있어야 한다. 의지가 없으면 마땅히 열어야 할 숙명의 문을 열지 않는다. 놀랍게도, 숙명의 문은 열리지 않아도 제압할 존재들을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렇게 안에 들어온 존재는 인식해야 할 운명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걷는다. 그럼 비극(시민비극)이 만들어진다. Y 대통령의 내란은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132년 전에 핀 핏빛 꽃들의 근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신이 결여된 난폭한 한 장이었다.

132년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이 여전히 같은 위치에 있다. 그때는 힘이 없었고, 흐름을 읽지 못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달라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하고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역관일지』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현재의 자리에서 읽고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현재의 리얼리티에 동학농민혁명의 리얼리즘을 담은 책이다.



천세진(문화비평가, 시인)

문화비평가, 시인, 소설가. 시집 『순간의 젤리』, 『풍경도둑』, 장편소설 『이야기꾼 미로』, 문화비평서 『어제를 표절했다-스타일 탄생의 비밀』, 산문집 『작은 날씨들의 기억』. 인문매거진 계간 『바닥』 주간 역임. 계간 『문예연구』 편집위원. 일간지 칼럼 필진(2006년~현재)

월	재단 주요 일정
1월	<p>01.05. 2026년 신년 참배 및 시무식</p> <p>01.12. 연구소 운영위원 워크숍</p> <p>01.23.~02.04. 추모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패 추가 부착</p>
2월	<p>02.05. 26년도 지역기념사업단체 지원사업 심사</p> <p>02.10. 6기 제2차 재단 자문위원회</p> <p>02.12. 6기 제3차 재단 이사회</p> <p>02.25. 2026년 제1차 기념관 운영위원회</p> <p>02.28.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p>
3월	<p>03.05.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사무처장단 회의</p> <p>03.28.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p> <p>03.31. 『녹두꽃』 63호 발간</p>
4월	<p>04.11.~11.20. 제2기 블로그 기자단 운영</p> <p>04.2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p> <p>04.30.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p> <p>04. 녹두장군 캠핑장 봄 정기 축제</p>
5월	<p>05.02.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p> <p>05.06.~05.11.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순회전시①</p> <p>05.11.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p> <p>05.1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통지서 전달식</p> <p>05.28. 고부관아 사적지정 학술대회</p> <p>05.30.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p> <p>05.31.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6호 발간</p> <p>05. 기념관 1차 특별기획전시 개막</p> <p>05. 가정의 달 특별프로그램 운영</p>
6월	<p>06.11. 동학농민혁명 저작비평회 개최</p> <p>06.27.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p> <p>06.30. 『녹두꽃』 64호 발간</p>

*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순회전시 일정은 재단 및 각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월	관련 단체 주요 행사
1월	<p>01.10.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봉준장군 탄생 170주년 기념행사</p>
2월	<p>02.26. (동학농민혁명고부농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 제132주년 고부농민봉기기념제</p>
3월	<p>03.05.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사무처장단 회의</p>
4월	<p>04.02.~03.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연대회의 및 4.3. 추념식 04.11.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원평집강소, 등록개의 꿈 04.17.~18.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보은취회, 제21회 보은동학제 04.24. (전봉준장군사업회) 전봉준장군 순국 131주기 추모제 04.25.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제132주년 무장기포 기념제 04.25. (김개남장군기념사업회) 김개남장군 순국 제 132주기 추모제</p>
5월	<p>05.01.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제132주년 부안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05.09.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동학농민혁명 무명농민군 위령제 05.17.~18.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연대회의 및 5.18 기념식 05.27.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32주년 장성동학농민혁명 황룡승전기념식 05.30.~06.11.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 행사</p>
6월	<p>06.02. (서울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최시형 순도 추모제</p>



문화가 있는 날



겨울 맞이 특별 프로그램

정읍시 글로벌 청년 겨울캠프



농식품이제개별원



Hello.D.P.R
글로벌 청년 캠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하는 『녹두꽃』

63호 퀴즈 이벤트



이벤트 바로가기

소식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퀴즈를 풀고, 정답을 제출해 주세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30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은 매년 5월 00일에 거행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날짜는?

- 1 5월 5일
- 2 5월 11일
- 3 5월 15일
- 4 5월 18일

응모 방법
페이지 우측 상단의 QR 코드를 찍고, 퀴즈를 풀어주세요!

응모 기간
2026. 04. 01.(수) ~ 04. 25.(토)

이벤트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 1인 1회 응모 가능하며, 이벤트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 주셔야 정상적인 응모가 가능합니다.
- 경품은 이벤트 참여 시 작성해주신 개인정보로만 발송이 가능하며, 잘못된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발송 후 모두 폐기됩니다.

당첨자 선물



30명

올리브영 상품권
1만원권

62호 퀴즈 이벤트 당첨 안내

62호 퀴즈

Q. 다음 중,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없는 것은?

- ① 바람 따라 걸으면 힐링되는 기념공원
- ② 가족과 함께 텐드도 펴고 즐기는 캠핑장
- ③ 배우고 놀고 체험까지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 ④ 사진 찍기 좋는데 음료도 꽤廉 카페

⑤ 시대를 뒤흔든 조병갑 본인

이벤트 당첨자

김재O님(0958)	이희O님(3042)
김정O님(8494)	임서O님(6278)
김향O님(2471)	임향O님(0940)
류효O님(7506)	정재O님(2933)
이윤O님(2741)	차세O님(2735)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신청안내

1. 대상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여 실제 전투에 참여한 자
- 동학농민혁명 당시 물자를 제공한 자(정보 포함) 및 노동력 제공자
- 기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이 명백한 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외손, 외증손, 외고손 포함)

2. 서류 및 제출 방법

가. 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참여자와 신청인의 유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나. 제출 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화로 742(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3.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063-530-9434 ~ 5)
- 위원회 홈페이지(www.cdpr.go.kr)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Inscribed on the
International Register
Memory of the World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족 신청 바로가기

기부금 모금 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기념식 개최,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기념공원 및 기념관 운영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단은 공익법인단체로서 아래와 같이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용도

- 01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 사업 추진
- 0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
- 0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본재산 및 운영 경비 확충
- 04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기부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이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 담당
(063-530-94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
(5614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동학로 742

기부자 및 기부금에 대해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참여 대상



기관



단체



개인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

기부자 예우

소정의 기념품 제공

기부금 세액공제

개인: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 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 시 3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
법인: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갑오년의 **햇불**,
오늘의 **빛**이 되다



2026. 5. 11.(월)

11:00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9 773092 421008

ISSN 3092-4219

61